

광주 테마마을 보러왔다가...실망만 안고 돌아간다

발산마을 12개 청년공간 문 닫고 제이홉 벽화 뜯기고 쓰레기 널브러져
펭귄마을 체험장소 문 잠기고 포토존 너저분...관리 소홀에 관광객 눈살
비엔날레 등 방문객 늘어나는데...지자체들, 관리주체 주민에 맡겨 방치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주제로 조성된 광주지역 테마마을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올해 5월은 5·18과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기간인데, 보다 많은 볼거리를 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서구에 있는 발산마을은 1960년 전남·일신 방직 노동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땅값을 이유로 모여 살던 마을로, 방직업의 쇠퇴와 함께 마을에 살던 이들도 빠져나갔다. 이에 서구는 2015년 마을 활성화와 관광을 위해 50억을 들여 청춘발산마을을 조성했다.

하지만 최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발산마을에선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었다.

12개 청년입주 공간이 있지만 이 중 ‘빛고를 사진 문화포럼’을 제외한 모든 곳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공예체험과 게스트하우스, 카페와 방문자센터 등에는 이용할 관광객도, 공간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없었다.

마을 게시판에는 2020년 공연 팸플릿과 빛바랜 코로나19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빌라 주차장의 페인트는 모두 벗겨져 흉물스러운 모습이었고 내부에는 골목 주차 차량들로 인해 포토존으로 마련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중국인 팬들이 광주출신 아이돌 BTS 제이홉의 생일을 기념해 그린 벽화가 있지만 제이홉 얼굴 일부는 뜯겨져 있었다. 명소로 알려진 108계단 아래

빈 공간에는 이불과 막걸리병 등 노숙자 침터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었고 쓰레기 등이 널브러져 있어 악취까지 났다.

관광객 체험을 위한 ‘청춘발산마을 미션투어’도 있지만 미션 수행 후 선물 수령지인 ‘플라스틱 정류장’은 화-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오전 시간대에는 수령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발산마을에 진입하는 버스는 2개 노선 밖에 없어 접근성에 따른 불편도 컸다.

김남준(여·76) 발산마을 샘물경로당 부회장은 “청년 딱지가 붙어있지만 사실상 청년은커녕 어른도 없다.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청 발산마을 담당자는 “낙후된 공간을 거점시설로 만드는 게 발산마을의 가장 큰 목표였다. 비어있는 도심을 채우는 개념으로 시도한 사업”이라며 “외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구 양림동에 있는 펭귄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펭귄마을은 주말 낮 시간대인데도 관광객은 두팀에 불과했다. 인근에서 ‘2023 공예주간과 함께 하는 펭귄마을 공예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었지만 관광객들을 펭귄마을로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었다.

펭귄마을안에는 사막여우 비밀우체국, 펭귄마을 느린 우체국 등 업서를 작성해 보낼 수 있는 조형물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마을 1004계단 아래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왼쪽) 양림동 펭귄마을을 공터에 공예거리 추가 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지난해 3월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치워지지 않고 있다. 바로 옆에는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이 있지만 펜과 엽서 등이 비치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고 펭귄우체국 조형물에는 쓰레기만 가득했다. 또 펭귄마을이라고 불리는 기념품 판매상과 펭귄set만들기 등 체험 장소는 문이 잠겨 있었다.

2020년 만들어진 ‘추억의 두레박 체험’ 장소엔 펄프와 간이 우물이 놓여져 있었지만 물이 모두 말라 마중물조차 끌어올릴 수 없었고 간이 우물은 자물쇠로 잠겨있어 체험이 불가능했다.

또 인근 공터에는 지난해 끝난 공사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포토존인지 쓰레기장인지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어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줬다.

서울에서 온 박형미(여·26)씨는 “막상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할지 안내판이나 노선도도 없어 혼란스

러웠다.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산만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여행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애(여·64)·송동중(68)씨 부부는 오랜만에 펭귄마을에 방문했지만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최씨는 “비슷한 테마마을인 군산 철길마을은 매년 방문해도 늘 진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아이들 체험부스도 없어 손주를 데려올 수도 없고 불만만 가득 있어 재방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송씨는 “포토존도 없고 전체적으로 심심한 느낌”이라며 “사람들이 이곳을 찾도록 랜드마크나 유인효과가 큰 점포, 맛집 등 확실한 것을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구는 펭귄마을을 활용해 다양한 양림동 관광 홍보를 펼쳤다. ‘펭귄마을 거점예술여행센터’에서 양림 아트워크를 운영하고 펭귄마을 내 재생 에너지카페와 공작소가 들어선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펭귄마을 관리 책임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남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펭귄마을 내에 조형물 등을 설치하긴 했지만 펭귄마을은 구청이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인 한데 관리주체는 마을 주민들이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산구시설공단 관리 비아5일시장 주차장 17개월간 경차 주차료 10% 더 받아 ‘논란’

“소프트웨어 오류” 해명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1년 반 동안 경차 주차 요금을 10% 추가로 받아 논란이 다.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5일시장 주차타워는 지난해 1월부터 무인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광산구 소촌동 소재 개발업체 에이아이테크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는 공단이다.

문제는 이곳 주차타워의 경차 할인률이 약 1년 반 동안 광산구 조례로 정해진 60%가 아닌 50%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차단기 앞 안내판에는 60%로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만 실제 할인율은 50%로 이뤄졌다.

문제가 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차타워를 이용한 차량은 총 5만 3716대로, 이 중 823대가 경차다.

공단이 10% 할인 경감을 적용하지 않아 추가 수익은 5만 749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에이아이테크 측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단 교통사업팀 관계자는 “그동안 별다른 민원이 없어 알지 못했다. 콜센터 측에 확인해보니 50%로 잘못 설정돼 있는 것을 알았고 자체 점검을 거쳐 지난 16일부터는 정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변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의 카드 결제 정보나 연락처 등을 따로 수집하지 않았고 알 수 있는 건 차량번호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여학생들 술 먹여 성폭행한 10대 4명 실형

광주지법, 장기 8년 단기 6년 등 선고...범행 장면 촬영까지

동년배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19)군과 C(19)군은 징역 5년과 4년을, D(19)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20년 6월께 광주의 한 학교 인근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6세였던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군은 범행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군과 지난 2021년 1월께 다른 여학생을 광주의 한 모텔로 술게임을 하자고 불러 똑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에 D군도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10월께에는 B군과 C군이 또다른 또래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광주와 경기도 등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탈어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모텔에 영아 방치 숨지게 한 20대 부부 항소심에서 감형

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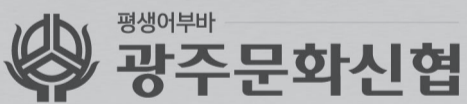
광주고법 형사2-1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여·22)씨의 항소심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이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생후 4개월 된 딸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모텔에 방치하고 일을 나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한 채 일을 나가 사망케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벌어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